

[ 신춘문에 ]

“철퍼!”  
다보지만 말고 소주 한 병 더 달라고 해!”  
학교에서 돌아온 현우는 낮부터 취해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짜증부터 났다. 할아버지는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는 아빠 욕을 했다. 그 대표적인 욕이 ‘얼어 죽을 놈’이었다. 할아버지는 일단 술이 입안으로 들어갔다 싶으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중얼중얼,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욕부터 시작했다. 그러다 끝에 가서는 한결같이 아빠에게 ‘얼어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라는 욕을 했다. 아빠에게 잘못이 있기는 하다. 허필이면 왜 ‘얼어 죽을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동화

고슴도치의 섬

김순아

“오늘만 한 병 더 달라고 해.”  
할아버지는 소주병을 던질 기세로 거칠게 흔들었다. 현우는 책가방을 어깨에 댄 채 취해 있는 할아버지를 결눈질하며 대문 밖으로 나왔다.  
“선주가 둔 주는 대로 값싸다고 하란 말이다.”  
할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대문 밖까지 쫓아왔다.  
“배만 있어도 니놈이랑 나랑 굶지는…….”  
또 그 녀두리 시작이다.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배는 할아버지 목숨보다 귀한 거라고 했다. 현우는 선창가에, 한 곳밖에 없는 수퍼로 갔다. 여제 수퍼 할머니는 더 이상은 외상 술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수퍼 앞에서 망설였다. 수퍼 할머니는 파리체를 든 채 꾸벅꾸벅 즐기고 있었다. 부웅, 뱃고동 소리가 들리자 할머니가 눈을 번쩍 떴다. 현우는 할머니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얼른 수퍼 담 벽으로 바짝 붙어 섰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쿵쿵 뛰었다.

이라면서,  
할아버지가 배만은 안 된다고 낯선 사람들을 불렀고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셨고, 아빠를 욕했다. ‘이 얼어 죽을 놈’이라고.

아 미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말든지 상관 마세요. 엄마랑 아빠도 나를 버렸는데 뭐.”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만 아는 뒤효 선창에 배를 정박해 두었는데도, 은행에서 나온 사람들은 쉽게 할아버지 배를 찾아내서 끌고 가버렸다. 술에 취한 할아버지를 마을 뒤효 선창에서 찾아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할아버지가 사라져버렸다. 현우는 목청껏 할아버지를 불렀다.

놈아.”  
현우는 아빠의 이름이 들리자 멈춰 섰다.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가 바위를 붙잡고 바다를 향해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불쌍한 놈, 똥난 애비 만나서.”  
할아버지는 현우에게 하는 말인지, 현우 아빠에게 하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을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했다.

학교발표회 날이 되었다. 현우는 오키리나로 ‘섬집 아기’를 불렀다. 친구들도, 마을사람들도 모두 정말 잘했다고 손뼉을 쳐주고 등을 두들겨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현우는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듣고 학교로 올 줄 알았다. 현우는 마을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고 부러워하는데도 눈물방울이 푼, 떨어졌다. 작은 방은 청소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구실로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자자고 했을 때는 언제고, 니 놈처럼 쉰 때는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선뼈를 발라줄 때는 언제고,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보지 않게 눈을 피욱, 감아 눈물방울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현우는 속으로 소리쳤다. 차마 마을 어른들에게 대꾸는 못 하고 눈물방울만 떨어졌다. 현우는 마을 어른들이 비상용으로 쓰는 동진호를 타고 다시 섬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마을 어른들이 할아버지에게 미리 전화를 했는지 할아버지는 선창 매표소 앞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동진호가 부두에 닿기 바쁘게 할아버지는 현우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 소라껍데기 잘 붙더라”  
“오키리나예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소주 냄새가 달콤하게 느껴졌다

현우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선창으로 갔다. 배가 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나무다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 아빠랑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는 섬에서 나가고 싶었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살고, 아빠 욕을 하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기도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니 애비가 나 속을 썩히는 것도 부족해서 니까지 나 속을 썩히나? 그래 어디 니가 갈 데는 있느냐?”  
할아버지는 다시는 현우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이 꼭 그러잡았다.  
“니 놈이 만에 하나라도 어떻게 되면 나가 니 애비를 어찌 봐. 그래도 부모라고 널 나한테 맡겼는데. 어디라고 니 혼자 똥으로 가. 배도 안 고프냐. 종일 싸 돌아 다니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현우는 마을 뒤효 산언덕까지 달려 올라갔다. 산언덕을 올라가면 바위가 많은 곳이 나왔다. 바위를 아래는 바로 바다였다. 아빠가 현우만 홀로 섬에 남겨 두고 떠나버리던 날, 현우는 무작정 산으로 달려 올라갔다. 배를 타야만 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나가 니 애비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동설한에 얼까봐, 오뉴월에 더위먹을까봐, 나가 지 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새끼!”  
할아버지는 현우를 안으려는 듯 두 팔을 벌렸다.  
“할아버지 추워요. 어서 집에 가요.”  
할아버지는 현우의 두 팔을 꼭 그러잡고 흔들었다. 할아버지는 ‘내 새끼’라는 말을 몇 번 반복했다. 현우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할아버지 입에서 달콤 쌉싸름한 소주냄새가 풍겼다. 산을 돌아 마을 뒤효 선창에 내려다보이는 마을 길로 들어섰다.  
“할아버지! 제가 크면 할아버지 배 다시 찾아 드릴

수퍼 담벽에 붙어 배에서 내리는 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현우는 곧 데리러 오겠다던 아빠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져버렸다. 현우는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멀리 사라져 가는 여객선의 풍무미만 바라보았다. 여객선은 현우가 사는 섬마을에 하루 두 번 뱃머리를 대었다 떠나버린다.

현우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선창으로 갔다. 배가 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나무다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 아빠랑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는 섬에서 나가고 싶었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살고, 아빠 욕을 하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기도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말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 입에서 소주냄새가 풍겨 나왔지만 현우는 할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아버지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다음날, 저녁 먹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현우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할아버지가 오지 않자 찾아 나섰다.

게요. 아빠를 얼어 죽을 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몸을 흔들흔들 숨을 몰아쉬던 할아버지가 멈춰 서서 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 말이 귀에 거슬리더냐? 이제 곧 엄동설한인데 어디 가서 뭘 하든 얼어 죽지는 말라고 그랬다 이 녀석아. 그래야 다시 널 데리러 올 게 아니냐. 섬사람들은 하늘이 무서워 말을 반대로 한다 이 녀석아.”

“오늘만 한병 더 달라고 해”  
“배만 있어도 니놈이랑 나랑 굶지는……”  
또 그 녀두리 시작이다

“철퍼!”  
다보지만 말고 소주 한 병 더 달라고 해!”  
학교에서 돌아온 현우는 낮부터 취해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짜증부터 났다. 할아버지는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는 아빠 욕을 했다. 그 대표적인 욕이 ‘얼어 죽을 놈’이었다. 할아버지는 일단 술이 입안으로 들어갔다 싶으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중얼중얼,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욕부터 시작했다. 그러다 끝에 가서는 한결같이 아빠에게 ‘얼어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라는 욕을 했다. 아빠에게 잘못이 있기는 하다. 허필이면 왜 ‘얼어 죽을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쭈그러 앉았다. 부웅, 뱃고동 소리가 들렸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배 안에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고 몇 사람만이 간만에 기대어 바다 끝,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장현우 ▲64년 진도생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10차례의 개인전, 한·중 수묵예술 교류전, 광주·대만 교류 ‘투영전’ 등 참가 ▲전업작가로 활동.

“오늘만 한병 더 달라고 해.”  
할아버지는 소주병을 던질 기세로 거칠게 흔들었다. 현우는 책가방을 어깨에 댄 채 취해 있는 할아버지를 결눈질하며 대문 밖으로 나왔다.  
“선주가 둔 주는 대로 값싸다고 하란 말이다.”  
할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대문 밖까지 쫓아왔다.  
“배만 있어도 니놈이랑 나랑 굶지는…….”  
또 그 녀두리 시작이다.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배는 할아버지 목숨보다 귀한 거라고 했다. 현우는 선창가에, 한 곳밖에 없는 수퍼로 갔다. 여제 수퍼 할머니는 더 이상은 외상 술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수퍼 앞에서 망설였다. 수퍼 할머니는 파리체를 든 채 꾸벅꾸벅 즐기고 있었다. 부웅, 뱃고동 소리가 들리자 할머니가 눈을 번쩍 떴다. 현우는 할머니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얼른 수퍼 담 벽으로 바짝 붙어 섰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쿵쿵 뛰었다.

현우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선창으로 갔다. 배가 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나무다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 아빠랑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는 섬에서 나가고 싶었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살고, 아빠 욕을 하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기도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넌, 김영감님 맥 손자 아니냐?”  
얼마나 지 부모가 보고 싶었으면  
할아버지가 날마다 술에 취해 사니……”

“철퍼!”  
다보지만 말고 소주 한 병 더 달라고 해!”  
학교에서 돌아온 현우는 낮부터 취해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짜증부터 났다. 할아버지는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는 아빠 욕을 했다. 그 대표적인 욕이 ‘얼어 죽을 놈’이었다. 할아버지는 일단 술이 입안으로 들어갔다 싶으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중얼중얼,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욕부터 시작했다. 그러다 끝에 가서는 한결같이 아빠에게 ‘얼어 죽어도 시원찮을 놈’이라는 욕을 했다. 아빠에게 잘못이 있기는 하다. 허필이면 왜 ‘얼어 죽을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선창으로 갔다. 배가 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나무다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 아빠랑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는 섬에서 나가고 싶었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살고, 아빠 욕을 하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기도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니 애비가 나 속을 썩히는 것도 부족해서 니까지 나 속을 썩히나? 그래 어디 니가 갈 데는 있느냐?”  
할아버지는 다시는 현우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이 꼭 그러잡았다.  
“니 놈이 만에 하나라도 어떻게 되면 나가 니 애비를 어찌 봐. 그래도 부모라고 널 나한테 맡겼는데. 어디라고 니 혼자 똥으로 가. 배도 안 고프냐. 종일 싸 돌아 다니게.”

현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많이 춥냐? 업어주라. 업혀봐라. 니 애비도 많이 업어줬다.”  
할아버지는 땅에 쭈그러 앉아 현우에게 어서 입혀라든 듯 두 팔을 옆으로 꼭 벌렸다. 현우는 못 이기는 척 할아버지 등에 업혔다. 할아버지의 마른 등은 폭신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할아버지는 현우를 업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놈 바라. 보기보다 꽤 무겁네. 너 소라껍데기 잘 붙더라”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옮기려하자 현우는 할아버지 등에서 꼭 미끄러져 내려왔다.  
“할아버지, 소라껍데기가 아니라 오키리나, 나, 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운동장 동백나무 울타리 옆에서 들었다. 니 놈은 날 못 봤지?”  
현우는 할아버지 겨드랑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할아버지가 숨을 쉴 때마다 풍기는 소주냄새가 현우에게 달콤하게 느껴졌다. 마을 안쪽을 비추는 가로등이 유난히 밝다.

현우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선창으로 갔다. 배가 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나무다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 아빠랑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는 섬에서 나가고 싶었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살고, 아빠 욕을 하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기도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니 애비가 나 속을 썩히는 것도 부족해서 니까지 나 속을 썩히나? 그래 어디 니가 갈 데는 있느냐?”  
할아버지는 다시는 현우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이 꼭 그러잡았다.  
“니 놈이 만에 하나라도 어떻게 되면 나가 니 애비를 어찌 봐. 그래도 부모라고 널 나한테 맡겼는데. 어디라고 니 혼자 똥으로 가. 배도 안 고프냐. 종일 싸 돌아 다니게.”

현우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선창으로 갔다. 배가 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나무다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 아빠랑 엄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우는 섬에서 나가고 싶었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살고, 아빠 욕을 하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기도 미워한다고 생각했다.